

11월 플라스틱 경기 다소 악화

중소기업중앙회, SBHI 914 불과 … 전체 SBHI도 99.9

11월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10월보다 다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.

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전국 1500개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<11월 중소기업 경기전망>을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, 전반적인 체감경기 수준을 나타내는 중소기업 건강도지수(SBHI)는 99.9로 나타나 중소기업체들의 경기전망이 비관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SBHI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보다 조사항목을 좀 더 세분화해 산출해낸 지수로 100을 넘으면 경기가 전월보다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음을, 100을 밑돌면 반대를 뜻한다.

그러나 10월 실적에 대한 SBHI는 당초 전망치(108.7)보다 하락한 94.9를 기록해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여건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인 것을 감안하면 11월 중소 제조업 체감경기는 예상치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.

11월 생산(102.5), 원자재 조달사정(102.1) 등은 10월보다 호전될 것으로 보인 반면, 내수판매(100.0)는 같은 수준에 머물고 수출(98.7)과 경상이익(94.2)은 나빠질 것으로 예측됐다.

중소 제조업 경기전망 SBHI

구	분	7월	8월	9월	10월	11월
경기전반	전망	101.9	94.9	107.4	108.7	99.9
	실적	87.0	85.3	97.6	94.9	-
생 산	전망	101.3	96.1	108.2	110.9	102.5
	실적	88.0	88.8	100.1	97.3	-
내수판매	전망	100.6	94.2	106.6	109.0	100.0
	실적	85.6	84.8	97.4	95.1	-
수 출	전망	100.8	94.8	101.4	104.3	98.7
	실적	87.8	88.8	96.1	93.8	-
경상이익	전망	94.8	89.2	98.6	102.3	94.2
	실적	81.5	80.4	91.8	89.2	-
자금조달사정	전망	96.8	92.8	98.3	100.6	95.8
	실적	87.7	86.4	91.2	90.0	-
원자재조달사정	전망	101.4	99.2	102.7	103.3	102.1
	실적	96.6	97.6	99.3	99.4	-
생산설비수준	전망	98.2	99.5	99.2	99.4	101.5
	실적	99.1	100.3	99.5	99.9	-
제품재고수준	전망	101.8	104.4	101.7	101.2	103.2
	실적	103.9	103.4	101.5	101.8	-
고용수준	전망	78.1	80.8	77.7	77.7	78.9
	실적	78.7	76.9	75.6	76.0	-

+ SBHI가 100 이상이면 호전(증가·부족), 100 미만이면 악화(감소·과잉)를 의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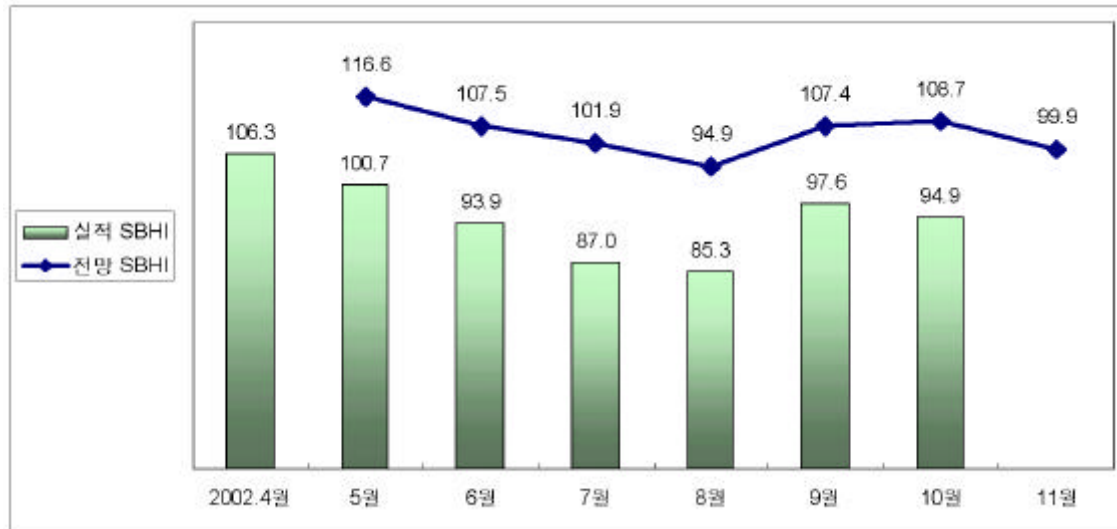
++ 생산설비·제품재고·고용수준 SBHI는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하락하고 경기수축기에는 상승하는 역제일

+++ 전월대비 기준(생산설비, 제품재고수준, 고용수준은 당월현재 기준)

특히, 고용수준은 78.9로 여전히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. 10월 중소 제조업의 기업경영상 애로요인으로 인력확보 곤란이 50.7%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, 다음으로는 내수부진(46.5%), 인건비 상승(40.5%), 과당경쟁(39.3%), 판매대금 회수지연(28.7%) 등의 순이었다.

업종별로는 음식료품(113.2)과 의료·정밀·광학기기·시계(109.3), 비금속광물제품(108.6) 등은 연말특수로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목재 및 나무제품(85.6), 의복 및 모피제품(90.9)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(91.4), 섬유제품(93.8) 등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됐다.

중소제조업 경기전반의 SBHI 추이



+ 전월대비 기준

< Chemical Daily News 2002/ 11/ 18 >